

영아기 사회성 증진 프로그램의 효과*

박 성 혜¹⁾

서울대학교 심리과학연구소

곽 금 주²⁾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성 현 란³⁾

대구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심 회 옥⁴⁾

군산대학교 생활과학부

장 유 경⁵⁾

한솔교육문화원

김 수 정⁶⁾

서울대학교 심리과학연구소

정 윤 경⁷⁾

본 연구는 영아의 사회성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영아는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종단적 영아 발달 연구에 참여한 450명 중 인지, 사회, 언어 영역 점수에서 하위 50%이하에 속하는 120명을 대상으로 했다. 그 중 60명의 영아를 무선적으로 선정하여 실험집단으로 하고 나머지 영아 60명을 통제집단으로 하였다. 영아의 사회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험집단에게 2주 간격으로 총 8회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사전-사후 사회성 증진 프로그램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어머니와 영아의 자유놀이 상황에서 장난감이 있는 경우 5분과 장난감이 없는 경우 5분을 촬영하였다. 코딩 분석을 통해 사전-사후 어머니-영아 상호작용, 신체접촉, 공동 주의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어머니-영아 상호작용 하위 영역 중 언어적 통제 영역에서 처치 조건과 검사시기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가 있었다. 신체접촉 유형 중 부드럽고 동적인 접촉의 경우에는 집단 간 주효과만이 있었으며 공동 주의는 처치 조건과 검사 시기의 상호 작용 효과가 있었다. 위의 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사회성 증진 프로그램은 영아의 사회성 발달에 영향을 주었음이 입증되었다.

주요어 : 증진프로그램, 어머니-영아 상호작용, 신체접촉, 공동 주의

* 본 연구는 2002년-2005년까지 학술진흥재단에서 지원한 기초학문육성과제(KRF-2002-074-HM 1006)의 일부임.

1) 서울대학교 심리과학연구소 연구원

2) 교신저자 : 곽금주,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E-Mail : kjkwak@snu.ac.kr

3) 대구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4) 군산대학교 생활과학부 교수

5) 한솔교육문화원 원장

6) 서울대학교 심리과학연구소 연구원

7) 서울대학교 심리과학연구소 연구원

I. 서론

인간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다. 그 중에서도 3세 이전 시기의 영아와 부모와의 관계는 이후에 맺게 되는 모든 관계의 근원이 된다. 아동발달과 유아교육 분야에서 이루어진 연구들을 살펴보면 태어나면서부터 3세가 될 때까지 아동이 경험하는 모든 것이 전 생애를 통한 건전한 발달에 결정적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Caplan & Caplan, 1982; Shore, 1997).

이처럼 많은 연구자들이 생후 3년 동안의 경험이 아기의 발달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입증하고 있는 반면 요즘 영아들은 부모로부터 받아야 할 적절한 관심과 사랑, 경험들을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이는, 핵가족화와 사회 활동을 하는 어머니가 많아짐으로써 영아들을 맡기기 위해 일찍부터 보육이나 교육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으며 부모들이 자녀 각자의 경험과 필요에 적절한 프로그램을 찾지 못해서 그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실제 외국의 경우 비교적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지역사회 주민들의 필요에 맞추어 개발되어 왔다. 그 중 1991년에 Hawkins와 Catalano가 개발한 시애틀 사회성 발달 프로젝트와 그 이듬해에 Elias가 개발한 사회적 문제 해결력 증진 프로그램은 사회적 기술을 훈련시킴으로써 사회적 능력을 증진시키는 데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부모와 영아가 함께 참여한 프로그램 중 Head Start Program, Parent-Child Development Centers Program, Pooley와 Littell(1986)가 실시한 25개의 Family resource program에서도 부모의 상호작용과 영아 발달에 대한 지식이 증가하였고 자녀 양육태도와

행동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음을 보여주었다. Weiss와 Halpern(1991)도 부모의 지식이나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해 부모에게 직접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부모의 행동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이러한 프로그램이 충분히 개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나마 영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촉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은 물론 영아 부모들에게 자녀 양육 및 교육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부모 역할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 유형에 대한 일부 프로그램(이영, 김온기, 2000)만 있을 뿐이다. 사실 국내에서도 많은 부모들이 영아 양육에 대한 정보와 프로그램의 필요를 절실히 느끼기 때문에 영아와 그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시급하다.

이와 같이 영아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에서 부모, 특히 어머니의 역할을 강조하는 이유는 출생 후, 최초로 경험하는 환경인 어머니가 영아의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어머니와의 관계가 영아의 성격과 행동, 사회적 상호작용이나 과제를 수행하는 능력을 개발시키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Chen, Hasting, Rubin, Chen, Cen, & Stewart, 1998; Isabella & Belsky, 1991). 이 밖에도, 영아는 사회적, 정서적 발달에 기여하는 상호작용 능력과 조절능력이 빠르게 발달(Sameroff, 1995; Sroufe, 1996)하는데, 이러한 능력의 개인차는 부모-영아 상호작용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Kagan & Carter, 1996).

부모-영아 상호작용은 부모-영아 애착과 관련이 되는데, Bowlby(1969)에 따르면 안전하게 애착된 영아들은 상호작용에서 즐거움을 느끼고 끈경이나 불확실한 시기에 부모가 함께 있

으면 편안함을 느낀다. 이는 부모-영아 애착이 상호적 관계임을 강조한 것인데, 부모의 민감성, 아이에 대한 정서적 지지, 언어적 사용이나 대화 스타일과 같은 부모-아동 상호작용 특성들은 아동의 언어 기술, 인지, 문제해결 기술 등의 발달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Fagot & Gauvain, 1997; Hart & Risley, 1995; Landry, Smith, Swank, & Miller-Loncar, 2000).

또한 애착연구가들은 부모-영아의 신체적 접촉 특징도 영아의 안전감을 양육하는데 필요한 반응적이고 이용 가능한 환경의 중추적 특성이라고 하였다(Bowlby, 1973). 이러한 신체 접촉은 의사전달의 기능을 하여 영아의 정서, 사회성 발달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Weiss, Wilson, Hertenstein, Campos, 2000; Weiss, Wilson, Seed, & Paul, 2001). 가령, 부모로부터 신체적 접촉을 적게 받은 아동은 그러하지 않은 아동들보다 또래 상호작용에서 더 공격적이다(Field, 2003). 또한 부드럽고 애정적인 접촉 유형을 자주 받은 영아는 거칠고 강한 신체적 접촉을 자주 받은 영아들보다 안정적인 애착 특성을 형성하는 경향이 있다(Weiss et al., 2001). 이처럼 거부적이고 거친 접촉 유형의 영향은 신체적으로 학대받은 아동에게 가장 광범위하게 설명되어 왔다. 이들은 강도 높은 불안전 애착 특성을 보인다(Main & Hesse, 1990).

한편, 상황에 따라 같은 종류의 접촉이라도 나타나는 반응이 다를 수 있으므로, 맥락에 따른 신체적 접촉 유형이 주는 효과를 연구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다(김수정, 곽금주, 2005). 어머니와 영아의 놀이상황에서 어머니의 접촉 유형에 대한 탐색은 어머니-영아의 상호작용을 접근하는 새로운 차원이 될 수 있으며, 영아의 사회성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접촉 유형에 대한 탐색은 양육현장에서

의미 있는 일이 될 수 있다.

어머니-영아의 상호작용에서 영아기 신체접촉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한 연구는 극히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신체접촉이 갖는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영아와 엄마 간 상호작용을 분석할 때 신체접촉을 초점으로 그 특성과 빈도를 알아보는 여러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이 외에도 애착연구가들은 양육자와 영아간의 동시화된 일과(synchronized routines)가 애착의 성장에 기여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라고 하였다(Tronick, 1989). 춤추는 것과 유사한 이런 협응된 상호작용은 양육자가 아기의 상태에 세심하게 주의하고 아기가 깨어있고 주목하고 있을 때 놀이자극을 제공하면 아주 잘 발달한다(Tronick, 1989). 즉, 타인과 함께 외부 대상에 주의를 집중하는 능력이 발달하게 되는 것이다(Bakeman & Adamson, 1984). 영아가 타인과 함께 특정 사물을 대상으로 하여 상호작용을 하거나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바라보는 대상을 함께 주의를 집중하여 바라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타인과 함께 외부 대상에 주의를 집중하는 능력을 공동 주의(joint attention)라 하는데, 이것은 영아기와 아동 초기 의사소통 뿐 아니라 여러 다른 사회적 능력(social ability)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Werner & Kaplan, 1963). 이전 연구 결과들에 따르면, 공동 주의의 발달은 언어 획득, 모방학습, 관습적인 행동의 학습, 애착, 사회인지, 마음의 이론의 발달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Bakeman & Adamson, 1986; Mundy & Gomes, 1998; Mundy, Sigman, & Kasari, 1994; Robson, 1967; Slaughter & McConnell, 2003; Tomasello, 1995).

위와 같은 연구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애착과 관련하여 어머니-영아 상호작용, 신체접촉, 공동 주의는 영아의 전반적인 발달 중, 사회성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영역임을 알 수 있다.

인간의 발달은 역동적일 뿐 아니라 누적적인 효과를 갖는다. 이런 이유에서 문제에 대한 초기 중재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다(Hart & Risley, 1995). 인간은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끊임없이 변화하는 존재이다. 최근의 연구들은 영아기가 단순히 감각운동기라는 사고의 제약을 가진 존재가 아닌 복잡하고 능력 있는 존재임을 주장하고 있다. 이런 이유에서 영아들의 문제가 복잡하고 이에 따른 해결책도 다양한 통로를 통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아지고 있다.

그러므로 영아기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환경적 요인을 파악하고 영아의 긍정적인 발달을 이끌 수 있는 요인을 강화함으로써 이를 위한 프로그램, 특히 인간의 모든 사회적 관계의 기본인 영아-어머니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두어 영아의 사회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 앞서 제시한 여러 연구 결과들을 근거로 어머니-영아 상호작용, 신체접촉, 공동 주의를 증진시켜서 영아의 사회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선정하였다.

1. 영아기 사회성 증진 프로그램은 어머니-영아의 상호작용 빈도에 영향을 주는가?
2. 영아기 사회성 증진 프로그램은 정적 반응

을 유발시키는 접촉 유형의 빈도에 영향을 주는가?

3. 영아기 사회성 증진 프로그램은 영아의 공동 주의의 빈도에 영향을 주는가?

II. 연구 방법

연구 대상

본 연구에 참여할 연구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18개월까지 사용된 체크리스트와 검사(예: MCDI)들을 사용하여 2002년부터 한국영아발달센터에서 실시된 종단연구(2003-2004년)에 참여한 영아들 중에서 인지, 사회, 언어 등 세 영역에서 하위 50%이하에 속하는 24개월 된 영아를 선발하였다. 선발된 영아들의 어머니들에게 전화로 참여여부를 확인한 후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하였고 동의를 얻은 후 최종적으로 전체 인원의 30%인 120명을 선정하였다. 이 중 남아는 63명(52.5%)이고 여아는 57명(47.5%)이었다.

측정 도구

어머니-영아 상호작용

어머니-영아 상호작용을 측정하기 위해서 장난감이 있는 자유놀이 5분을 10초 간격으로 하고 Calkins와 Johnson(1998)의 코딩체계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어머니-영아 상호작용은 부정적인 상호작용과 긍정적인 상호작용으로 나누었다. 부정적인 상호작용은 “안돼, 하지마” 등과 같이 언어적인 통제를 하는 것과 신체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제재를 가하는 것을 포함하였다. 긍정적인 상호작용은 “잘했어. 참,

잘한다” 등과 같이 긍정적인 언어표현을 한 것과 머리를 쓰다듬거나 뽀뽀하는 것과 같이 신체적으로 애정표현을 하는 것을 포함하였다. 이와 같이 4가지 범주로 나누어, 10초 간격으로 이와 같은 행동이 나타났으면 1점, 나타나지 않았으면 0점을 부여하고 점수 범위는 0점에서부터 30점까지이다. 어머니-영아 상호작용을 점수화하기 위해 오랫동안 비디오 코딩을 해 온 두 평정자를 선정하여 측정하고자 하는 변인에 대한 평정자 훈련을 3회에 걸쳐 실시하였다. 어머니-영아 상호작용 네 범주(언어적 통제, 신체적 통제, 긍정적 신체표현, 긍정적 언어표현)에 대한 두 평정자간 일치도 상관은 .64-.71이다.

신체접촉의 유형

신체접촉 유형을 분석하기 위해 총 32개의 접촉 유형을 접촉의 강도나 활동의 속도에 따라 3개의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가령, 부드럽고 움직임이 약한 접촉 유형은 **부드럽고 정적인 접촉 유형**으로 구분하였고, 이에 속하는 접촉 유형으로는 뽀뽀하기, 쓰다듬기, 마사지 등이다. 두 번째로 부드러우면서도 움직임이 강한 접촉 유형은 **부드럽고 동적인 접촉 유형**으로 구분하였고, 꼭 안아주기, 업기, 들어올렸다 내리기 등이 이에 속한다. 다음으로 움직임이 강하고 활동 강도가 센 접촉 유형은 **동적이고 거친 접촉 유형**으로 구분하였고, 깨물기, 꼬집기, 간질이기 등이 이에 속한다. 신체접촉 유형의 측정은 어머니와의 자유놀이 5분을 5초 간격으로 접촉 유형의 여부를 체크하여 접촉 빈도를 점수화했다(김수정, 객금주, 2003). 신체접촉 유형에 대한 두 평정자간 일치도는 .78-.99이다.

공동 주의

어머니와 영아의 공동 주의를 측정하기 위해서 장난감이 있는 자유놀이 상황에서 영아의 연속적인 주의 행동을 관찰하여 5초 단위로 이루어진 각 시간 단위에 영아의 주의가 어떠한 상태인지를 Bakeman과 Adamson(1984)의 코딩체계에 근거하여 분석하였다. 영아의 주의적 상태는 영아의 주의 집중과 공동 주의 여부에 따라, 무관여(unengagement), 방관(looking on), 대인 집중(person-engaged), 대물 집중(object-engaged), 지지적 공동 주의(supported joint attention) 및 협응적 공동주의(coordinated joint attention)로 분류 되었다(정윤경, 객금주, 2005 참조). 공동 주의에 대한 두 평정자간 일치도(Kappa)는 .61이다.

연구 절차

집단배정

선발된 영아들은 무작위로 실험집단(60명)과 통제집단(60명)으로 배정하였다. 사전에 실험 집단과 통제집단을 무작위로 배정한 후 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참가 여부를 확인하였다.

사회성 증진 프로그램 개발

본 프로그램은 2004년 12월부터 2005년 3월까지 2주 간격으로 4개월 동안 실시하기 위한 총 8회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였다. 본 프로그램의 세부 목표는 영아의 발달 증진과 어머니-영아간의 상호작용, 신체접촉을 통한 상호작용 및 정서완화, 어머니와의 애착형성, 나아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능력 등을 증진시키고자 하였다. 또한 어머니에게는 유능감, 자신감 및 영아의 발달에 대한 지식 습득과 이해 증진시키기, 영아와 놀이 상황에서 상호

작용 하는 방법 익히기 등을 목표로 하였다.

프로그램의 최종 목표는 위의 세부 목표를 바탕으로 어머니-영아 상호작용, 신체접촉, 공동 주의를 촉진하도록 하여 영아의 사회성을 증진시키고자 하는데 있다.

이러한 목표에 따라 프로그램은 부모들이 프로그램 훈련자의 안내를 받은 후 훈련자의 도움 없이 훈련내용을 실시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부모들이 자신의 행동을 모니터링 하여 조절할 수 있도록 활동 진행 상황 체크지와 부모훈련교재를 만들었다. 이것은 부모의 수행을 평가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뿐 아니라 부모가 독립적으로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매개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 시기동안 프로그램 훈련자는 가정 방문을 하지 않고 전화로 부모에게 지속적으로 영아들과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프로그램의 내용은 2세 영아의 발달에 적합하며, 영아-어머니의 상호작용이 활발히 일어날 수 있는 놀이인 22개 활동으로, 신체 활동, 미술활동, 언어활동, 탐색 활동, 극화 활동, 물 활동, 음률활동 등으로 구성하였다. 22개 활동을 모두 수행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영아들이 좋아하는 활동이라면 반복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매체는 집에서 흔히 이용할 수 있는 도구와 상호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활동에 필요한 도구를 제작하여 사용하였다. 제작한 도구는 프로그램 훈련자 뿐만 아니라 영아 어머니들에게도 세트로 만들어 제공하였다. 또한 영아와 어머니가 상호작용하는 동안 정서적 완화를 위해 시중에 있는 전래 동요 중 활동에 적합한 음악을 선정하여 재구성한 CD를 제작하였고 이를 영아와 어머니들에게 제공하였다.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구성은 영아관련 발달 전문가 5인의 판단에 근거하였고 8회기 동안 인지, 언어, 사회성 프로그램이 실시되었으며, 그 중 1, 4, 7, 8회는 사회성 훈련에 해당되는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실시하였다.

앞서 제시된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위해 영아와 어머니를 선발하여 활동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어머니와 영아가 직접 활동하는 장면을 비디오로 녹화하는 등 사회성 증진 프로그램용 비디오테이프를 제작하였다. 이 비디오테이프를 훈련을 거친 프로그램 훈련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실제 실험집단 가정에 가서 어머니에게 활동 프로그램 비디오테이프를 보여 주도록 하였다. 그리고 프로그램 훈련자가 시범을 보이고 나면 어머니가 영아에게 직접 실시해 보도록 하였다.

또한 어머니에게 자세한 교육활동 지침서와 활동에 대한 활동 진행상황 체크지를 나누어 주고 가정에서 영아들과 실행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가정에서의 활동 실행 방법은 22개 활동을 모두 다 수행하는 것을 강조하지 않고, 영아가 좋아하는 활동들을 여러 번 반복 실시 하면서 의미 있는 정서적 교류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사회성 증진 프로그램의 또 다른 중요한 특성은 부모들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는 기초적인 단순한 원리들에 근거함으로써, 부모의 참여도와 만족도를 높이하고자 하였다. 부모의 만족감과 자신감은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동기를 높일 수 있으며, 이것은 스스로의 자존감을 높이는 또 다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프로그램 훈련자 교육

사회성 증진 프로그램을 부모님에게 훈련시

표 1. 8회 영아기 사회성 증진 프로그램

회	활 동 명	주요영역	활 동 목 표
1회	팔다리 ‘쭉쭉’ + 배에 ‘푸’ 다리사이로! 망원경 전화 거울속의 나	신체접촉 신체접촉 공동주의 공동주의	터치를 통한 엄마와의 친밀감 형성, 상호작용능력 촉진 엄마와의 신체접촉과 타인에 대한 이해 엄마와의 협응력 증진 자기인식, 자기의 소중함 인식
2회	플레이 도우 놀이	상호작용	엄마와의 신뢰감 촉진과 협응력 증진
3회	줄과 함께 하는 놀이 손가락 만나기 놀이	상호작용 상호작용	사회적 협응능력 촉진 사회적 협응능력 촉진
4회	엄마와 함께 춤을! 비누놀이 베개놀이 비행기야 날아라 나의 어린시절	상호작용 신체접촉 신체접촉 상호작용 신체접촉	아이와의 상호작용 촉진, 신체조절 능력 터치를 통한 정서완화 터치를 통한 상호작용 및 애착형성 엄마와의 상호작용 촉진 신뢰감 촉진 및 정서 이해
5회	손가락 인형놀이	상호작용	주의집중력 높이기, 상호작용 촉진, 소근육 발달
6회	발바닥그림자 따라가기	상호작용	다른 사람과의 협응된 상호작용 능력 향상
7회	거울표정놀이 아이스크림 사요! 보자기 놀이 동대문 놀이	공동주의 공동주의 상호작용 신체접촉	정서이해 촉진, 엄마와 눈 마주침을 통한 상호작용 증진 눈짓과 몸짓을 통한 타인의 마음 이해 증진 자기효능감 증진, 터치를 통한 엄마와의 애착형성 사회적 협응 능력 촉진, 영아의 적극성 증진
8회	풍선잡기 놀이 공과 함께 하는 놀이 발바닥을 맞춰요 탁구공 놀이	상호작용 공동주의 신체접촉 공동주의	관계능력 향상, 자기조절능력 향상 자기조절능력 향상, 협응된 상호작용 능력 향상 터치를 통한 애착 형성 및 상호조절 능력 협응된 상호작용 증진, 자기조절, 타인의도 예측 능력 증진

킬 사람들을 공개 모집하여 최종 6명(심리학이나 교육학과 관련된 전공을 이수하거나 이수중인 대학원생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을 선정하였다. 이들을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한 후 프로그램 훈련자 교육을 실시하였다. 프로그램 훈련자 교육은 1회기(사전 검사 훈련), 2회기(1-3주 프로그램 훈련), 3회기(4-6주

프로그램), 4회기(7-8주 프로그램), 5회기(사후 검사 훈련)로 총 5회 실시하였다.

프로그램 실시

사회성 증진 프로그램은 실험집단을 대상으로 2004년 12월부터 2005년 3월까지 2주 간격으로 총 8회 실시하였다. 사전 사후 검사까지

프로그램 교육자가 실험집단 가정을 총 10회 방문하였다. 반면 통제집단의 경우 사전검사와 사후검사 총 2회의 가정방문을 하였다.

프로그램 교육자들은 실험집단의 경우 매 회마다 비디오로 제작된 사회성 증진 프로그램 활동을 영아 어머니에게 보여준 후 영아를 대상으로 시범을 보였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활동 방법 및 활동 시 주의사항, 추후활동 등을 안내하였다.

다음 회기 프로그램이 시작되기 전에 그 주에 소개된 활동들을 반복해서 하도록 권장하고 2주 동안 주로 한 활동들을 활동체크지에 기록하도록 하였다.

프로그램 효과 검증: 사전사후 검사

사회성 증진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실험집단 60명과 통제 집단 60명에게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과 후에 검사를 실시하였다. 먼저 어머니-영아 상호작용, 신체접촉 유형, 공동 주의를 알아보기 위해 장난감이 있는 경우 자유놀이 5분과 장난감이 없는 경우 자유놀이 상황을 비디오카메라로 녹화하였다. 이처럼 장난감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나눈 이유는 어머니-영아 상호작용과 신체접촉 유형의 경우 장난감이 없는 상황에서 더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으며 공동 주의의 경우 장난감이 있는 상황에서 더 잘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을 각 영역별 코딩체계를 통해 분석하여 집단간 사전-사후를 비교하였다.

또한 영아기 사회성 증진 프로그램 교육활동을 얼마만큼 자주 실시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활동 진행 상황 체크지를 배부하였다. 실험집단 총 60명의 어머니 가운데 44명인 73%의 체크지가 수거되었다. 활동 진행 상황

체크지는 사회성 증진 프로그램 22개 모두가 제시되어 있어 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는 동안 영아와 어머니가 함께 활동을 할 때마다 체크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어머니들은 영아들과 ‘팔다리 쪽쪽’, ‘다리사이로’, ‘손가락 만나기 놀이’, ‘거울 속의 나’, ‘비행기야 날아라’ 등의 활동을 많이 하였는데, 이는 상호작용, 신체접촉, 공동 주의 영역을 골고루 나타내는 활동들이었다. 이를 통해 어머니가 영아와 함께 주로 많이 한 활동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었다.

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먼저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고 어머니-영아 상호작용, 신체접촉 유형, 공동 주의의 빈도 변화를 통한 영아기 사회성 증진 프로그램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처치 조건(프로그램 유무)과 검사 시기(24개월과 28개월)를 독립변인으로 하여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어머니-영아 상호작용에 대한 사회성 증진 프로그램의 효과

어머니-영아 상호작용에 대한 사회성 증진 프로그램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본 연구에서는 처치 조건과 검사 시기에 따른 전체 어머니-영아 상호작용의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어머니-영아 상호작용을 세부적으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부정적인 상호작

표 2. 언어적 통제 행동의 평균과 표준편차

	사전	사후
	M(SD)	M(SD)
통제	.09(.35)	.13(.34)
실험	.24(.72)	.04(.19)

용 중 언어적인 통제의 경우 상호작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언어적 통제 행동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제시하면 표 2와 같다.

언어적인 통제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토대로 처치조건(2)을 피험자 간 요인으로, 검사 시기(2)를 피험자 내 요인으로 하여 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어머니의 언어적 통제 행동은 처치 조건과 검사시기에 따른 주효과는 없었으나 처치 조건과 검사시기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F(1,107)=3.83$, $p<.05$. 즉 실험집단의 경우 어머니의 언어적 통제는 사전보다 사후에 줄어들었으며, 통제 집단의 경우는 언어적 통제가 사전보다 사후

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호작용 효과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그림 1과 같다.

신체접촉 유형에 대한 사회성 증진 프로그램의 효과

신체접촉 유형에 대한 사회성 증진 프로그램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처치 조건과 검사 시기를 독립변인으로 하여 변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부드럽고 동적인 접촉 유형에 대한 검사 시기 주 효과가 유의미했다, $F(1,103)=11.90$, $p<.01$.

표 3. 부드럽고 동적인 접촉 행동의 평균과 표준편차

	사전	사후
	M(SD)	M(SD)
통제	.30(.06)	.54(.11)
실험	.40(.06)	.8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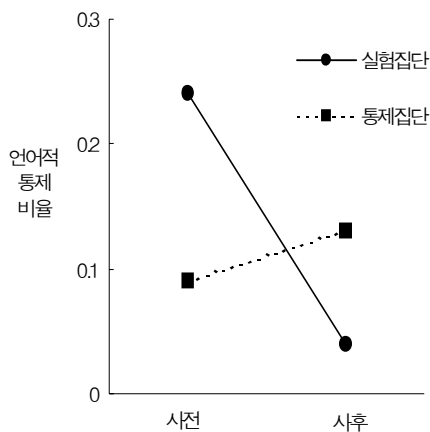


그림 1. 사전-사후 어머니의 언어적 통제에 대한 집단별 패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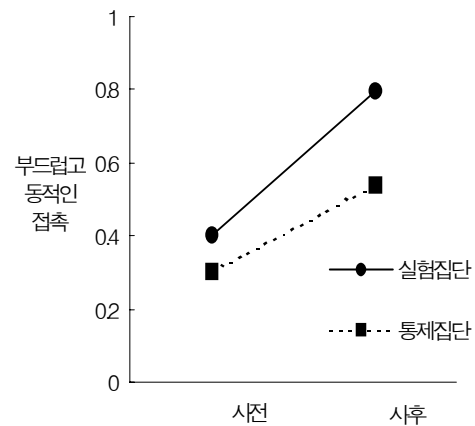


그림 2. 사전-사후 부드럽고 동적인 접촉에 대한 집단별 패턴

이러한 접촉 유형이 시간에 따른 증가 정도에서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간 차이는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하지는 않았다(표 3 참고). 그러나 그림 2에서 제시된 것과 같이 통제집단에서 보다 실험집단에서 부드럽고 동적인 접촉 유형의 사용이 조금 더 증가되는 경향을 보였다.

공동 주의에 대한 사회성 증진 프로그램의 효과

공동 주의에 대한 사회성 증진 프로그램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서 처치 조건과 검사 시기를 독립 변인으로 하여 변량 분석을 실시하였다(표 4 참고). 그 결과 검사 시기에 대한 주효과가 유의미했다, $F(1,100)=29.30$, $p<.01$. 또한 처치 조건과 검사 시기에 따른 상호작용

표 4. 공동 주의의 평균과 표준편차

	사전	사후
	M(SD)	M(SD)
통제	29.83(19.99)	37.63(21.71)
실험	27.75(16.79)	44.54(15.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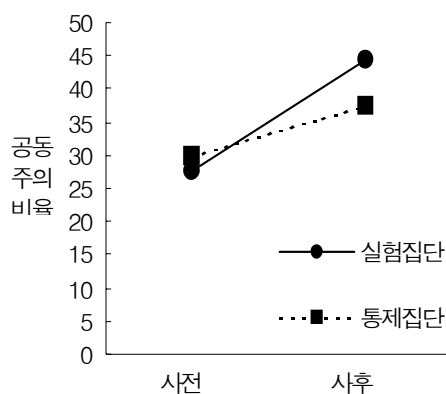


그림 3. 사전-사후 공동주의에 대한 집단별 패턴

효과가 유의미했다, $F(1,100)=3.94$, $p<.05$.

이는 그림 3과 같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모두 사전 사후에 걸쳐 공동 주의의 양이 증가하였지만, 통제집단에 비해서 실험집단이 더욱 많이 증가되었음을 볼 수 있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영아기 사회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3단계의 과정을 거쳐 연구가 진행되었다. 첫 번째 단계는 영아기 사회성 발달 영역에 대한 개념 정의와 사회성 발달 이론적 고찰에 근거하여 프로그램의 내용을 구성하였고, 두 번째 단계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영아의 어머니들에게 제시하여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세 번째 단계에서는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였다. 질적 자료 분석을 통한 프로그램의 효과 검증에 대한 결과와 이에 대해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영아기 사회성 증진 프로그램을 2주간격으로 총 8회기 동안 실시한 결과, 전체적인 어머니-영아 상호작용은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어머니-영아 상호작용 영역 중 어머니의 언어적 통제가 처치 조건과 검사 시기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언어적 통제가 실험집단의 경우 사전검사 때보다는 사후검사 때 감소하였고 통제집단의 경우는 언어적 통제가 사전검사 때보다는 사후 검사 때 증가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부모의 지식이나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부모에게 직접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부모의 행동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고한 연구들(Weiss & Halpern., 1991; Pooley & Littell, 1986)과 유사하다. 즉 어머니의 부정적인 상호작용인 언어적인 통제가 사회성 증진 프로그램으로 인해 줄어들었음을 나타내 주고 있다.

둘째, 영아기 사회성 증진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신체접촉의 유형에서 뚜렷한 처치효과를 보이지 않았다. 다만,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증가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놀이 상황에서 어머니들이 자녀에게 사용하는 부드럽고 동적인 접촉 유형의 사용은 통제 집단에서 보다는 실험집단에게서 더욱 증가되었다. 선행연구에 의하면(곽금주, 김수정, 2004), 일반적으로 심리적으로 안정적인 어머니들이 불안정한 어머니들보다 놀이상황에서 부드럽고 정적인 접촉 유형과 동적인 접촉 유형 등을 다양하게 사용하였다. 그러나 부적인 내적 심리상태를 가진 어머니들은 자녀에게 긍정적인 정서를 유발시키는 다양한 접촉 유형을 잘 사용하지 않는 경향을 보였다(곽금주, 김수정, 2004). 처치 기간이 총 8회로 4개월간 프로그램이 실시되면서 뚜렷한 통계적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지만, 긍정적인 발달을 이끌 수 있는 접촉 유형의 사용은 증가되었다. 따라서 프로그램 실시 기간이 좀 더 진행되었다면, 처치의 유의미한 효과를 이끌 수 있으리라 예측해 볼 수 있다.

셋째, 영아기 사회성 증진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영아와 어머니의 공동 주의 발달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어머니와 영아가 함께 하는 놀이(예를 들면, 영아가 어머니와 눈을 마주치며 공을 주고받는 놀이)와 같이 눈으로 상호작용하는 사회적 참여의 경험이 공동 주의의 발달을 촉진시켰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가리키기 행동이

나 눈 마주침과 같은 비 언어적인 의사소통 채널에 근거한 상호작용은 영아의 사회적 이해 능력을 촉진한다. 이에 따라 영아는 좀 더 자주 어머니와 주위를 협응하여 상호작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면, 본 연구에서 실시한 영아기 사회성 증진 프로그램의 효과는 어머니-영아 상호작용, 공동 주의에서 부분적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체접촉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증가는 아니지만, 부드럽고 동적인 접촉 유형의 사용이 통제집단 보다는 실험집단에서 더욱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사회성 증진 프로그램에 관련된 연구들이 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주를 이룬 것과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영아기 사회성 증진 프로그램]을 장애 영아가 아닌 비장애 영아와 어머니를 대상으로 어머니-영아 상호작용, 신체접촉, 공동주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활동 프로그램을 제시하였는데 큰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아울러 방법론적으로는 영아-어머니의 상호작용을 측정하는데 있어서 실시하기 어려운 비디오 촬영법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둘 수 있다. 자유놀이가 어머니-영아 간에 일어나는 가장 순수한 사회적 활동(Stern, 1974)이고 두 사람간의 상호작용 스타일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McDonough, 1993) 자유놀이 상황에서 이루어진 자료수집이 어머니와 영아의 자발적인 상호작용을 측정하는데 적절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얻어진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의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프로그램 실시 회기와 실시 간격 조

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성 증진 프로그램을 2주 간격으로 총 8회기를 실시하였는데, 그 효과를 알아보는 데는 너무 회기 수가 적었고 처치 간격이 길었다. 프로그램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후속연구에서는 1주 간격의 총 32회기 프로그램과 같이 프로그램 실시 기간을 연장하여 처치의 효과를 검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둘째, 연구대상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세심한 고려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성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의 효과가 부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좀 더 유의미한 처치의 효과 검증을 위해서는 연구 대상을 일반 영아와 부모뿐만 아니라 사회성 발달을 저해하는 환경의 영아와 그 부모들을 대상으로 사회성 증진 프로그램을 광범위하게 실시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셋째, 처치 효과의 지속성을 알아보기 위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시간 관계상 처치 효과의 지속성을 알아보기 위한 추후연구를 실시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처치 효과의 지속성을 알아보고 이를 설명하기 위해 처치 대상 아동의 성숙 및 경험 요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여 장기적인 효과에 대해 지속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프로그램 내용도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하여 질 높은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검증을 지속적으로 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 박금주, 김수정 (2004). 어머니의 내적 변인에 따른 영아와의 신체접촉 유형 간 비교: 우울, 태도, 양육스트레스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7(1), 1-18.
- 김수정, 박금주 (2003). 의사전달로서의 영아기 신체접촉. *인간발달연구*, 10(2), 51-73.
- 김수정, 박금주 (2005). 어머니의 내적 변인에 따른 상황에서의 접촉 유형의 비교: 우울, 불안, 양육스트레스, 접촉 태도, 자아개념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8(2), 1-18.
- 이영, 김온기 (2000). [엄마와 함께 하는 영아 교육 프로그램]이 어머니-영아 관계 및 영아 발달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연구*, 20(3), 67-84.
- 정윤경, 박금주 (2005). 영아기 공동 주의 발달에 대한 단기 종단연구: 어머니와 자유놀이에서의 주의 상태와 가리키기 행동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8(1), 137-154.
- Bakeman, R., & Adamson, L. B. (1984). Coordinating attention to people and objects in mother-infant and peer-infant interaction. *Child Development*, 55(4), 1278-1289.
- Bakeman, R., & Adamson, L. B. (1986). Infants' conventionalized acts: Gestures and words with mothers and peers. *Infant Behavior & Development*, 9(2), 215-230.
- Bowlby, J. (1969). *Attachment and loss: vol. 1. Attachment*. New York: Basic Books.
- Bowlby, J. (1973). *Attachment and loss: vol. 2. Separation, anxiety and anger*. New York: Basic Books.
- Calkins, S. D., & Johnson, M. C. (1998). Toddler regulation of distress to frustrating events: Temperamental and maternal correlates. *Infant behavior & Development*, 21(3), 379-395.
- 박금주, 김수정 (2004). 어머니의 내적 변인에 따른 영아와의 신체접촉 유형 간 비교:

- Caplan, F., & Caplan, T. (1982). *The Second Twelve Months of Life*. New York: Perigee Books.
- Chen, X., Hasting, P. D., Rubin, K. H., Chen, H., Cen, G., & Stewart, S. L. (1998). Child-rearing attitudes and behavioral inhibition in Chinese and Canadian toddlers: A cross-cultural study. *Developmental Psychology*, 34(4), 677-686.
- Fagot, B. I., & Gauvain, M. (1997). Mother-child problem solving: continuity through the early childhood years. *Developmental Psychology*, 33(3), 480-488.
- Field, T. (2003). *Touch*. The MIT Press: Cambridge, Massachusetts, London, England.
- Hart, B., & Risley, T. R. (1995). *Meaningful differences in the everyday experience of young american children*. Baltimore, MD: Paul H. Brooks Publishing Co.
- Isabella, R. A., & Belsky, J. (1991). Interactional synchrony and the origins of infant-mother attachment: A replication study. *Child Development*, 62, 373-384.
- Kagan, N., & Carter, A. S. (1996). Mother-infant reengagement following the still-face: The role of maternal emotional availability in infant affect regulation. *Infant Behavior and Development*, 19, 359-370.
- Landry, S. H., Smith, K. E., Swank, P. R., & Miller-Loncar, C. L. (2000). Early maternal and child influences on children's later independent cognitive and social functioning. *Child Development*, 71(2), 358-375.
- Main, M., & Hesse, E. (1990). Parents' unresolved traumatic experiences are related to infant disorganized attachment status: is frightened and/or frightening parental behavior the linking mechanism? In M. T. Greenberg & D. Cicchetti(Eds.), *Attachment in the preschool years: theory, research, and intervention*(pp. 161-182).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 McDonough, S. C. (1993). Interaction guidance: Understanding and treating early infant-caregiver relationship disturbances. In C. H. Zeanah(Ed.), *Handbook of infant mental health*(pp.414-426). New York: Guilford Press.
- Mundy, P., & Gomes, A. (1998). Individual differences in joint attention skill development in the second year. *Infant Behavior & Development*, 21(3), 469-482.
- Mundy, P., Sigman, M., & Kasari, C. (1994). Joint attention development level, and symptom presentation in autistic children. *Development and Psychology*, 6, 389-401
- Pooley, L., & Littell, J. (1986). *Family resource program builder: Blueprints for designing and operating programs for parents*. Chicago: Family Resource Coalition.
- Robson, K. S. (1967). The Role of Eye- to-eye Contact in Maternal- Infant Attachment. *Journal of Child Psychology & psychiatry & Allied Disciplines*, 8(1), 13-25.
- Sameroff, A. J. (1995). General systems theories and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In J. Cicchetti & D. J. Cohen(Eds.),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Vol. 1. Theory and methods* (pp. 659-695). New York: Wiley.
- Shore, R. (1997). *Rethinking the brain: New insights into early development*. New York: Families and Work Institute.

- Slaughter, V., & McConnell, D. (2003). Emergence of joint attention: Relationships between gaze following, social referencing, imitation, and naming in infancy.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64(1), 54-71.
- Sroufe, L. A. (1996). *Emotional development: The organization of emotional life in the early year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tern, D. N. (1974). The goal and structure of mother infant play. *Journal of American Academy of Child Psychology*, 13, 402-421.
- Tomasello, M. (1995). Joint attention as social cognition. In C. Moore & P. J. Dunham (Eds.), *Joint attention: Its origins and role in development* (pp.103-130).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Tronick, E. Z. (1989). Emotions and emotional communication in infants. *American Psychologist*, 44, 112-119.
- Weiss, E., & Halpern, R. (1991). *Community-based family support and education program: Something old or something new?*(pp. 11-19) National Center for Children in Poverty, Washington. DC.
- Weiss, S. J., Wilson, O., Hertenstein, M. J., & Campos. R. (2000). The tactile context of a mother's caregiving: Implications for attachment of low birth weigh infants. *Infant Behavior and Development*, 23, 91-111.
- Weiss, S. J., Wilson, P., St. Seed, J., & Paul, S. M. (2001). Early tactile experience of low birth weight children: Links to later mental health and social adaptation. *Infant and Child Development*, 10, 93-115.
- Werner, H., & Kaplan, B. (1963). *Symbol formation*. New York: Wiley.

1차 원고접수 : 2005. 6. 30.

수정 원고접수 : 2005. 9. 9.

최종 게재 결정 : 2005. 9. 15.

Effects of program for promoting social development in infancy: looking through mother-infant interaction, touch and joint attention

Sunghae Park^{*} Keumjoo Kwak^{**} Hyunran Sung^{***} Heeog Sim^{****}
Youkyung Chang-Song^{*****} Sujung Kim^{*} Yoonkyung Jeong^{*}

^{*} The Institute of Psychological Science, Seoul National University

^{**} Department of Psych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 Department of Psychology,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 Department of Child & Family Studies, Kunsan National University

^{*****} Hansol Educational Research Center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the program for promoting social development and to investigate its effect on mother-infant interaction, touch and joint-attention. 120 Subjects were selected from 450 infants on the basis of their developmental score, who participated at the longitudinal study carried out from 2002 to 2004. Participants were randomly divided into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s. Infants and their mothers in experimental group were trained with our 8-session- program for 4 months with the interval of 2 week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the program, interactions in both groups were observed during pre-test and post-test sessions. The interactions during their free-play situation were measured on the basis of their interaction styles, touch pattern, and the amount of joint attention. The results revealed that our program influenced mother's verbal interaction style, the amount of positive touch type and the joint attention. These results indicate that the program facilitated infants' social development through tapping the important aspects of interaction with their primary care-givers

Key words : promoting program, mother-infant interaction, touch, joint-attention